

수행하다 새길 안 빠지려면...



염불수행을 할 때 눈물이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절을 할 때 몸이 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의 신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수행요론〉(바나리)은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저런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법을 담은 일종의 수행 지침서다.

예를 들어 염불을 할 때 눈물이 흐른다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맑은 소리와 크고 일정한 소리로 염불을 계속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이면 두려운 마음을 내지 말고, 절을 할 때 온몸이 떨린다고 절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지은이는 수행의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수행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자는 수행일기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며, 일기를 쓸 경우 먼저 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이 책은 이론보다는 실천적 이야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이론적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론적 체계도 실천을 중심으로 한다.

계율·기도·염불·간경·진언·참선 등 수행마다의 의의, 방법, 효과 및 수행자의 자세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수행 길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불교 및 일반 수행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문화 속에 숨어있는 종교의 진면모

‘전시회에 간 예수, 영화관에 간 부처’ 김승철 지음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종교의 세계를 살핀 〈전시회에 간 예수, 영화관에 간 부처〉(시공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특정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는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들의 그 문화 속에 녹아 있는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도 우리 삶의 그릇 혹은 반영으로서의 문화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 속의 종교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우리 주변의 문화를 통해 종교의 본질로 접근한다. 풍부한 이론, 예술 자료를 토대로 삶 속에 녹아 있는 참 종교, 타종교를 인정하는 열린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윤복과 고흐, 모차르트와 바흐, 영화 ‘고래사냥’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람브란트의 그림과 ‘십우도’...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본 예술가들과 작품들이다. 이렇게 친근한 문화들 속에 있는 종교의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다. 지은이 김승철

씨는 종교학자 특유의 눈으로 그 속에 녹아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모습을 짚어낸다. 그것들에는 종교의 본질, 성향, 종교인의 삶, 자세 등이 함축해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를 보다 선명하게 머릿 속에 그릴 수 있게 한다.

영화 ‘고래사냥’을 보고는 현실에서도 악이 선에게 감동을 받아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사람의 그림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보고는 그리스도를 뱃속에 품은 성모라

고 한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야부인을 비교하면 서 보살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전개한다. 또한 장욱진의 그림과 최승호의 시에서는 눈사람을 통해 공(空)을 말하고, 과일을 소재로 한 유희 작품에서는 세속적 쾌락의 무상함을 엿본다. 특히 눈사람을 통해 종교인의 자세를, 달을 통해서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묻는다. 무상(無相)의 존재인 신과 인간 관계의 문제, 신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문제, 니르시스 신화를 통한 ‘자기’의 문제를 고찰한다.

특정 종교만을 고집하는 사람의 경우, 지은이의 시각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마리아를 보살로 비유한 부분 등은 기독교계로부터 반발을 낳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육박지르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종교적 의미를 찾아가는 지은이의 다원주의적 종교관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별 거부감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sa@buddhapa.com

그림·영화로 본 종교 단면 열린 눈으로 의미 찾기



전시회에 간 예수, 영화관에 간 부처



고도의 정보통신, 사이버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인간의 심리 문제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것이 대표적 이유다.

유식학의 이론과 사상을 실용화하여 일상 속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 이 책은, 불교라는 종교는 결코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님을 확연히 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현대문제 푸는 실마리 ‘유식학’

고목 스님 ‘유식학 강좌’

“자연이란 원자 실험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도 불합리한 것인가.” 대표적 신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한 말이다. 현상계의 사물은 그 ‘실재’인 원자 차원에서 볼 때 합리성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을 비롯하여 현대과학이 규명한 성과들이야말로 유식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00년 전에 성립된 유식학이 이미 현대과학이 규명한 바를 광범위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뜻

하는 것이다. 신간 〈유식학 강좌〉(삼양)는 현대물리학의 신지식과 주로 20세기 후반부터 발표된 생물학과 진화론 등을 바탕으로 유식학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 〈화두 이야기〉 등을 펴낸 고목 스님. 그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은 어렵고 난해한 분야인 유식학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은이는 “유식학은 현대인과 현대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거울	원성 이레	장경각
2	신해대지가 잘 빛이다	양형진	다지인하우스
3	선재스님의 생활유시	선재	호미
4	삭발하는 날	현진	불지사
5	성경엔 없다	고준환	효림
6	영가천도	우통	열림원
7	선의 나침반	현자	삼양
8	화두공학과 초점	고목	다림미디어
9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효림
10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도서 안내: (02) 737-0695

병 고치는 토종약초 최진규 ‘약이 되는...’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전2권, 한문화는 우리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약초도감이나 한방서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토종약초의 효능과 그 약초를 이용해 여러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전국 산야를 누비며 우리 풀과 꽃 그리고 나무의 신비한 약성으로



연구하고 있는 최진규 씨.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약초 활용법과 뿌리·줄기·꽃·잎·열매로 보는 꼼꼼한 약초 사진, 약초 채취하기·다듬기·보관하기 요령, 약초에 얽힌 이야기가 알차고 유익하다. 값 각권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돈황! 예술과 구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 천년의 도시로 떠나고 싶다.

정찬주의 돈황 가는 길

KBS <9시 뉴스> ‘올 여름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겨레, MBC, YTN 등 전언론이 주목한 책!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의 작가 정찬주가 불심을 품고 구법승의 길을 따라 나선 새로운 지적 여행기.

사막 속 오아시스 도시 돈황! 진리를 찾아 고독한 길을 건넌던 구도승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돈황으로의 여행. 13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석굴벽화 속의 화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발견.

“전작들에서 정찬주만의 독특한 불교적 가치를 통찰하는 심미인과 수승한 문장력에 감탄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돈황가는 길》에는 한층 무르익어 마치 자신의 사리를 봉안한 다보탑을 보는 듯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최인호(소설가)

정찬주 글·사진 | 반양장 | 국번형판 | 296쪽 | 본문 4도 | 값 9,900원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 TEL: (02) 741-1990 ■ <http://www.gimmyoung.com>

깨달음의 행복을 김명사 불교총서와 함께
독자 친화적 속에 꾸준히 사랑받는 불교연구서의 힘

禪 어록 시리즈	선불교 거장들의 생생한 지혜와 철학,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세계적인 명저들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주해/영기봉 옮김 양장본 315쪽/값 7,000원
달마어록	야기다 세이진 주해/영기봉 옮김 양장본 300쪽/값 8,900원
초기선종사 1,2	야기다 세이진 주해/영기봉 옮김 1권 464쪽 2권 358쪽/1권 값 14,900원 2권 값 13,900원
망가사어록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영기봉 옮김 양장본 308쪽/값 8,500원
대혜서	이리야 진크 주해/영기봉 옮김 양장본 400쪽/값 14,900원
불교학술서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공 석학들의 주옥같은 명저들
대승불교개설	히라키와 아키라 외 편자/정승익 옮김 양장본 408쪽/값 12,000원
불교요설	야기다 세이진 주해/정승익 옮김 양장본 184쪽/값 9,000원
바우트라불교	나카가와 히라키 외 편자/정승익 옮김 신국판 368쪽/값 7,900원
인도고대사	함 사반 사르미 주해/이광수 옮김 양장본 392쪽/값 8,900원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주해/박인재 옮김 양장본 192쪽/값 7,900원
불교입문	다카자키 지카도 주해/신민인 옮김 가장본 양장본 290쪽/값 11,000원